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曺点煥

韓國教會 組織運營의 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1992年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金 允 在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曺点煥

韓國教會 組織運營의 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11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金 允 在

金允在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金璨培

審査委員 李溶傑

審査委員 曺卓煥

目 次

Ⅰ. 緖 論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2. 硏究의 內容 및 方法 2
   1) 硏究의 內容 2
   2) 硏究의 方法 3
3. 用語의 定義 3

Ⅱ. 理論的 背景

1. 初代 敎會의 正統性 5
   1) 속사도 시대에서 3세기까지의 교회 5
   2) 分派들의 理解 7
   3) 키푸리안의 교회 이해 8
2. 中世 敎會의 正統性 8
   1) 7세기에서 10세기의 敎會 9
   2) 스콜라 時代 9
   3) 極端的 組織體 敎會에 대한 挑戰 10
3. 宗敎改革期 敎會의 正統性 11
   1) 루터의 改革 12
   2) 칼빈의 改革 13
   3) 再洗禮派 14
4. 近世 敎會의 正統性 15
   1) 칼 바르트의 敎會觀 16
   2) 에밀 브루너의 敎會觀 17
   3) 위르겐 몰트만의 敎會觀 18

Ⅱ. 敎會 組職運營의 實態

1. 敎會 組織의 政治制度 實態 20
1) 監督制 制度 20
2) 會衆 制度 22
3) 長老 制度 23
2. 敎會 組織運營의 實態 26
1) 當會 26
2) 堂會의 運營 27
3) 諸職會 35
4) 諸職會의 運營 36

Ⅳ. 敎會 組織運營의 改善方案

1. 敎會 組織運營의 一般的 實例 40
2. 發展 指向的인 敎會組織 運營 45
3. 合理的인 敎會行政 49

Ⅴ. 要約 및 結論

1. 要 約 53
2. 結 論 54

參 考 文 獻 56

英 文 抄 錄 58

Ⅰ. 緖 論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10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아세아는 물론 세계 宣敎史에서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세계 교회의 선교사에 있어서 선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그 까닭은 외적인 성장에 비하여 내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 조직운영의 합리화가 더욱 요청되어진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의 조직이다. 즉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회는 지상에서 보는 교회로서의 보이는 모습이 있고, 천상적인 교회로서의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인영혼 구원의 교회로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곧 성경의 진리이기도 하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이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 이 시행되는 교회이고, 성도의 신앙훈련이 바로 되게 하는 교회이다.

병든 마음과 죽은 영혼을 살려주고, 비뚤어진 인간을 바로 잡아 새사람으로 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교회는 병원과 같은 성격, 학교와 같은 성격, 국가와도 같은 성격으로서의 교회이다.

초창기 한국 교회는 이러한 교회적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왔으나 오늘날의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英, 美 선진국의 교회의 조직운영은 合理的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反하여 한국교회는 여러 교단으로 분열되거나 난립현상을 보여왔다. 이로 인해서 목회자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파행적인 교회운영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본 연구자는 한국 교회 조직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에대한 硏究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첫째, 敎會史에 나타난 교회의 정통성을 살펴본다.

둘째, 敎會 組織運營의 실태를 규명한다.

셋째, 교회의 정통성에 비추어 본 한국 교회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넷째, 합리적인 교회 조직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硏究의 內容 및 方法

1) 硏究의 內容

첫째, 교회사를 통하여 초대 교회,중세 교회, 종교개혁기 교회, 근세 교회의 정통성을 抽出한다.

둘째, 교회 조직운영에 있어서 정치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독제제도, 회중제도, 장로제도를 검토한다.

셋째, 교회 조직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당회, 제직회의 운영의 실태를 파악한다.

넷째, 합리적인 교회행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硏究의 方法

첫째, 한국 교회 조직운영의 실태와 개선방안의 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이를 위하여 관련자료 수집과 연구자의 다년간의 목회경험을 토대로 의제에 합당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3. 用語의 定義

1) 使徒 - Apostle 이라는 헬라어로서 "보냄을 받는다" 는 뜻으로서 예수의 직계 제자를 의미한다.

2) 敎父 - 예수의 제자들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순교, 변증, 복음증거를 위해서 신학적인 기반을 세운 사람들을 지칭한다.

3) 변증가 - 박해시대가 지나고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과 비난과 오해하는 시대에 이를 변증한 2 세기의 신학자를 뜻한다.

4) 靈知主義 (Gnosticism) - 영지주의는 신앙보다 인간의 지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헬라철학 , 동양철학 , 기독교 교리의 결합사상(철학)을 의미한다.

5) 유기체로서의 교회 - 공동체의 이념을 강조하는 교회. 유기체(organism)라 함은 하나의 생명을 가진 기관으로서 상호 의존적으로 특별한 작업을 행하는 상이한 기관들이나 부분들로 구성된 몸으로서의 인간 혹은 국가 집단 등을 뜻한다. 이것이 극단으로 갈경우 無敎會主義가 된다.

6) 조직체로서의 교회 - 조직체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적하에 함께 일하는 조직 또는 개인들의 체계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이는 극단으로 가면

로마 카톨릭적 교회의 성격이 된다.

7) 敎役者 - 교역자는 聖職者를 의미한다.

Ⅱ. 理論的 背景

본 장에서는 초대 교회, 중세 교회, 종교개혁기 교회, 근세 교회의 정통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初代 敎會 (1 - 590)의 正統性

사도 바울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1] 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 사건의 適時性을 선언했다. 실로 긴 유대인들의 역사와 1세기의 로마제국이 누린 발전은 기독교를 받아 들일 産室로써 준비되었던 것이다.

기독교는 결단코 우연히 진리를 깨달은 어떤 종교적 천재에 의하여 막연히 전해진 종교가 아니라 준비된 세계, 기다리는 마음속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초대 교회에서 먼저 속사도들의 교회 이해, 분파들의 역사, 신학자 키푸리안의 교회 이해를 살펴 보려고 한다.

1) 속사도 시대에서 3세기까지의 교회

Clemens Romanus 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소유로 선택된 자들이다. 이들을 성도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양이다." 라고 하였다.[2] Didache

---

1) 신약성경 갈 4 : 4

2) Reinhold Seeberg, History of Doctrines, Translated by Charles E. HAY,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56), vol. 1, p.58

는 "교회는 전세계에 흩어진 신자들의 몸이다" [3] 라고 했다. 변증가들은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제사장적 후손"이라 했다.[4]

알렉산드리아 교부중에 오리겐은 "교회를 신자들의 회중, 하나님의 도성, 의로운 자의 화합"이라[5]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공동체로 이해했다. 성도들의 교통 또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적 교회를 의식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했다.[6] 당시 교회를 성도들의 교통으로 이해했으나 단순한 공동체만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

유기체적 교회를 위해 일하고 봉사하고 감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유기체로서 교회는 섬기는 자와 지도자없이 건전한 발전을 이룰수 없음을 인식했다.[7] 유기체로서 교회와 조직체로서 교회의 엄격한 구별이 없어도 조직체적 요소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조직체로 교회이해를 결정적으로 필요하게 한 것은 2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이단들 때문이었다. 이단이 일어남으로 참된 보편교회는 자신을 표명해야 했는데 그것은 어떤 外的 특징을 갖춘 교회였다. 이런 외적 특징을 갖춘 교회는 사도들을 직접 계승하는 감독들이 다스리는 조직체로서 교회였다. 여기서 먼저 外的 조직체로

---

3) 「상게서」 p. 114
4) 「상게서」 p. 116.
5) 「상게서」 p. 159.
6) 박형용, 「교회론」, (서울 :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p.22
7) E. G. 제이, 「교회론의 역사」, 주재용 역,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p.64.

서 교회 이해를 자극시킨 분파들의 교회론을 살펴보자.

2) 分派들의 理解

2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서방교회는 점차 세속화의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간헐적으로 일어나던 박해시를 지나면서 교회는 다시 예배가 형식화되고 부패해 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틈을 타서 교회안에는 개혁을 표방한 分派運動이 생기게 되었다. 당시에 일어난 분파들은 2세기 후반에 있어서 청교도적인 개혁운동으로 일어난 몬타누스 (Montanus) 주의와 3세기 중엽의 노바티안 (Novatians) 주의였다. 몬타누스주의자였던 터틀리안은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해하며, 노바티안주의자는 '거룩한 자들의 집회'로 이해했다.[8] 그들에게서 교회는 조직체적 측면보다도 유기체적 공동체로 이해가 앞섰다.

몬타누스운동은 6세기까지 그 여세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는데 그들은 啓示가 사도시대에 종료된 것으로 믿지 않고 사도의 계시의 계속성을 주장하고, 그들만이 영적 엘리트로 자처하였으며, 금식과 고행을 장려하였는데 오히려 방종과 형식주의로 일관하는 조직체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다시우스 황제 (150 -251) 시대에 심한 박해가 있을때 많은 순교자와 변절자들이 생겼었다. 박해가 끝난뒤 관용론과 課罰論으로 의견이 대립될 무렵 감독 선거가 있었는데 관용론자인 코넬리어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과벌론자인 노바티안은 이에 불만을 품고 분파운동을 일으켜 그들의 교회에

---

8) 「상게서」, p.83.

카톨릭교회의 신자들이 가입코자 할때 再洗禮를 주장했다.

3) 키푸리안의 교회 이해

분파들의 논쟁은 결과적으로 監督제도를 강조하게 되었다. 키푸리안은 터툴리안 다음으로 위대한 칼타고의 신학자였다. 248년에서 258년까지 칼타고의 감독으로 활약하면서 박해 중에도 분열주의자들의 도전에도 잘 싸워나가다 끝내 순교하였는데, 키푸리안은 감독교회의 교회를 발전시킨 최초의 사람이었다. 감독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생각하여서 참된 감독을 떠난 교회원은 구원이 없다고 했다. 키푸이안은 유형적이며 外的인 통일로 이루어진 보편적 교회 개념을 최초로 명백히 확립한 인물이다. [9] 그는 교회를 노아방주의 개념과 비교해서,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고 안에만 있는 것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안에만 있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영적이며 유기체적 교회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10] 유기체적 교회보다는 조직체적 교회를 강조했다.

2. 中世 敎會 (590 -1517)의 正統性

기독교 중세의 역사는 590년 즉 교황 그레고리 1세 즉위로부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착수하기까지의 920년간의 역사이다. 중세 기독교는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중세 교회사는 로마교회 성쇠에 따라 가는데,

---

9) L. Berkhof, 「기독교교리사」, 신복윤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92), p.265.

10) 김의환, 「카푸리안의 교회관」, 신학지남 37권 2집 (1970. 6월.), p.49.

재권과 교권의 분쟁을 면하지 못하고 모하멧교의 영향으로 많은 손해와 적은 유익을 들 수 있으니 그들의 무력전도와 불신앙으로 오는 해와 저들의 열심으로부터 받은 충격적 유익 등은 그 일례이다.

1) 7세기에서 10세기의 敎會

"현재 교회는 하늘왕국으로 불린다. 신자들의 회중은 하늘왕국으로 말해지기 때문이다."[11] 라고 표현한 Gregory 대제는 성도들의 회중을 교회의 본질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있어 교회는 택함받은 자들의 왕국이요, 거룩한 우주적 교회는 모든 천사와 사람을 포함해서 아벨로부터 모든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는 조직체적 교회보다 유기체적 교회를 본질로 이해했으며 로마 감독의 우월권과 세계적 감독이라는 칭호를 거절했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적인 교회 이해는 外的 조직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키푸리안이 가졌던 조직체적 교회 이해를 그대로 받아 들여서 손질을 한 것 이었다.[12] 이렇게 점점 조직체로서 교회가 강조되어진 결과 다음세대는 교황 절대 교권주의라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

2) 스콜라 時代

스콜라시대는 교권주의가 확고히 세워졌다. 특히 스콜라시대 후기에는 더욱 교권주의가 만연되었다. 인노센트 3세는 말하기를 "교황은 그리스도

---

11) Reinhold, Seeberg, 「전게서」, vol. 2, p.25.
12) L. Berkhof, 「조직신학 교회론」, 고영민 역, (서울 : 기독교문사), p.21.

의 대리자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치하여 하나님 아래에 있으나 사람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못하나 사람보다 위대하다"[13] 고 하여서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는 유일한 지배자가 되길 원했다. 이와 같이 外的 조직체에 극단적인 강조점을 둔 교황주의는 교부들에 있어서 교회 이해에 핵심이 된 성도들의 교통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하였다. 이것은 스콜라주의자들이 영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부정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적절히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다.[14] 스콜라신학을 대표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도신경 주석에서 교회부분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모임을 의미하며 성도들의 모임으로 정의한다.[15] 결국 성도들의 교통으로 유기체적 교회이해가 있었으나 교회론의 치중은 확실히 조직체적 교회에 있었다. 이 점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정의한 추기경 Bellarmine (1542 -1621) 에 의해 잘 반영되고 있다. 그는 교회를 "같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성례를 받으며, 합법적 지도자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인 로마 교황의 지배 아래있는 모든 자들의 일단이다."[16] 라고 했다. 이런 교회관은 유기체적 교회보다 조직체적 교회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교회론이다.

3) 極端的 組織體 敎會에 대한 挑戰

중세 서방교회안에는 머리로서 교황을 포함한 성직자들의 계급적 조직체로서 교회 개념과 함께 전체 신도들 (universitas fideliun) 의 개념이 주

---

13) Reinhold Seeberg, 「전게서」, vol, p.87.
14) E. G. 제이, 「전게서」, p.144.
15) 「상게서」, p.144.
16) L. Berkhof, 「기독교 교리사」, 신복윤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92), p.272.

장되었다.[17]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교황제도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었다.

교황권과 교직제도에 대한 가장 공공연한 반대는 12세기에 아퀴테인의 알비게오이스 지역에서부터 나타난 알비파들로 알려진 분파에서 나왔다. 알비파는 두가지 교회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립한 하나님의 교회로 자신들의 공동체이며, 다른 하나는 악한 신, 혹은 사탄의 교회로 그것은 로마 카톨릭교회라 했다. 영국 프란체스코회의 수도사였던 옥캄의 윌리암은 교회를 "믿음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모임, 즉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생명안에서 동시에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했다[18]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교황제도에 반대한 알비파, 옥캄의 윌리암 등에 있어서 교회는 성도들의 교통으로 유기체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宗敎改革期 敎會 (1517 - 1648) 의 正統性

16세기 초에 서방교회와 관계를 맺고있던 모든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외쳐대고 있었다. 이 운동은 1517년에 시작되었으나, 그것을 갈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하였다. 서유럽은 두개의 종교진영 즉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뉘게 되었다. 이 양진영 간에는 극심한 적개심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자주 전쟁이 벌어지곤 하였으며,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진

---

17) E. G. 제이, 「전게서」, p. 149.
18) E. G. 제이, 「상게서」, p.158.

지한 시도도 거의 없었다. 더욱이 많은 개혁자들이 낙심하였기 때문에 거의 초기부터 그 운동은 여러 종파로 나뉘었다. 즉 그들이 개혁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했다는 이유로 싹튼 과격파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더 보수적인 개혁자들 사이에 형성된 신학적인 차이때문에 나뉘게 된 것이다.

많은 요인들, 즉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점차 고조되고 있던 유럽의 민족주의) 이고 경제적 (독일 농부들의 불만) 인 요인들은 운동의 발발 상황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분명히 운동의 직접적인 발발 동기는 절망적인 재정상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레오 10세가 선포한 면죄부였다. 면죄부를 장려하던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사 테첼 (Tetzel) 의 뻔뻔스러운 방식들은 마틴 루터라는 이름을 지닌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아우스틴) 수도원의 젊은 수사의 분노를 터뜨렸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는 비텐베르크성의 교회문에 '면죄부에 관한 95개 조항의 논제들'을 붙였다. 개혁의 불이 붙은 것이다.

1) 루터의 改革

루터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사상은 그의 교회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congregatio fidelium으로 여긴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루터는 교회를 성자들의 모임으로 정의한다.[19] 그는 교회가 '성자들의 모임'으로 서술될 수 있는 한 그곳은 복음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장소라는 말을 첨가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에게 보여지며 알려질 수 있

---

19) 「상게서」, p.192.

으되 교황이나 추기경 감독들의 다스림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성례의 순수한 시행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다. 루터에 있어서 조직체적 교회가 받아들여져도 교황제도와 같은 극단적인 측면은 강하게 부정된다. 오히려 유기체적 성도의 모임으로 교회이해가 앞선다. 이러한 사실은 루터가 주장한 만인제사장 사상과 연관이 있다. 로마 카톨릭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 모든 참 신자가 제사장직을 수행하여 인간적 중보자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 여기서 신자 각자는 하나님앞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루터는 주장한다.

2) 칼빈의 改革

오토 베버에 의하면 칼빈의 교회이해는 루터와 다르다. 루터가 신앙공동체로 교회를 강조한다면 칼빈은 신앙공동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을 위해 제정하신 기구 (institution) 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주체가 사람에 역점을 두는 '신앙인의 공동체'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사람들에게 신앙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존하기 위해 제정하신 기구로 교회개념이 앞선다. 칼빈은 루터보다 교회 전통에 더 충실한 사람이어서 제도적 교회를 루터보다 더 중요하게 이해했다. 그러나 칼빈이 제도적 교회만 이해한 것은 아니다. 제도로서 교회를 이해함과 동시에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해했다. 즉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에 제도적인 면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의 모임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임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모임 또는 회중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조직적인 기구 (insyitution) 로 이해하느냐?" 양자 택일의 요구를 받는다면 기구로서 교회를 택할 수 밖에 없다.[20] 칼빈은 믿는 자들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어머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고 말한 키푸리안의 말을 인용한다.[21]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우리가 일생동안 다녀야 할 학교라 말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재를 갖기 위해 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22] 이런 것으로 보아 칼빈은 일차적으로는 교회를 조직적인 기구, 즉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기구임을 강조했다. 그 다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다. "칼빈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 개념'에 대한 기초를 놓은 일이 없다"[23]

이상을 종합해서 보면 칼빈이 루터보다 제도적 교회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루터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3) 再洗禮派

재세례파의 교회이해는 反로마 카톨릭적이다. 그들은 로마교회의 형식주의, 교황 절대주의로 나타나는 조직체적 교회를 극단적으로 반대한다. 교회를 다만 신자들의 모임으로만 이해한다. 그들중에 많은 사람이 유형적

---

20) 오토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 풍만출판사), 역자 서문.

21)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aigion vol. 2, Editor : John T. McNeill, (Philadelpia : The Westermister Perss), p.1012.

22) 「상게서」, p.1016.

23) 오토베버, 「전게서」, p.56.

교회와 은혜의 방편까지도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나 성례보다도 성령의 빛을 체험하는 주관적 경험을 더 강조하였다. 재 세례파가 이해한 유형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영적 인도를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며, 규율이나 교권제도를 外的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24] 그러므로 재세례파는 조직체적 교회 특성을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다.

4. 近世 敎會 (1648 -20 C)의 正統性

17세기 중반은 '서구 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기'였다. 이 시기가 현대 기독교에서 일어난 중요한 많은 사건들의 관문이였으며, 현대를 특징짓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출발기였던 것이다. 많은 요인들 -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권위에 대한 종교개혁의 도전, 서구 유럽에 있어서 연합되고 강력해진 국가들의 성립, 신세계의 발견에 따른 세계의 팽창과 식민지화, 유럽의 무역증강과 항해술의 발전, 자연과학의 엄청난 진보에 의한 지식의 확장, 1648년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으로 끝난 동족 상잔의 종교전쟁과 이로 인해 일어난 중앙 유럽의 경제적 고충과 종교의 진리와 가치에 대한 회의 - 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갔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교회는 1700년간의 전통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세계에 자신이 서 있음을 알게 되었다.

---

24) E. G. 제이, 「전게서」, p. 209.

1) 칼 바르트의 敎會觀

바르트는 그의 로마서 강해를 쓰기까지 교회에 대하여 神性 (신성) 을 인간화시키고 세속화시키려는 시도로 묘사하였다. 로마서에서 바르트는 "교회의 일은 인간의 일이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일 수 없다. 교회안에서 神에 대한 인간의 적대감은 고조에 달해있다.[25] 등 과격한 표현을 했다. 그러나 바르트는 결코 교회가 버려진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제도로서의 교회, 모든 인간 조직의 약점을 가진 교회를 강조하였다. 교회는 의인화된 죄인들의 공동체요, 풍성하고 희망적인 회개의 장소,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강조했다.[26] 바르트는 교회본질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에서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 존재적 근거가 된다.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의롭게 된 온 세계와 인간은 성령의 일깨우는 힘에 의해 공동체로 모이고, 온 세계와 인간을 성화시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모인 공동체로 성장한다. 여기서 성장한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온 세계와 인간에게 약속된 메세지를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27] 또한 바르트는 교회를 살아있는 회중으로 보았는데, 다른 사람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동경험을 통해 서로 사귄 결과로의 교회였다. 이런 교회는 보이지 않는 친교나 공동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이는 교회였다. 기도, 신앙고백, 세례, 성만찬, 말씀선포등으로 회중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

---

25) 「상게서」, p.404.
26) 「상게서」, p.404.
27) 변인복, "칼 바르트 교회론연구", (석사논문, 감리교신학대학원, 1982), p.51.

랑의 공동경험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이다. 공동체의 사역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복음의 선포, 설교, 집사의 직분 등으로 나타난다. 바르트는 유형 공동체로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조직체적 교회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면에서 바르트는 조직체적 교회의 특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 에밀 브루너의 敎會觀

브루너는 교회의 본질 이해에서 기구적이고 성례전적인 이해를 반대하면서 교회를 전적으로 공동체라는 人格的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가 파악한 교회의 핵심은 인격 공동체이다. 이것을 교회 (Church) 와 구별하기 위하여 에클레시아 (Ekklesia) 로 부른다. 오늘날의 장로교, 루터교, 로마 카톨릭, 개혁파 할 것 없이 교회를 기구 (Institution) 라는 비인격적인 것으로 만들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그 원인이 에클레시아 곧 인격공동체를 떠난 데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이며, 신앙의 표현과 고백을 위한 의식적 공동체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적 사랑의 공동체이며 형제의 모임이다. 신약의 교회들은 기구들을 가졌으나 기구는 아니며, 질서를 가졌으나 질서는 아니다"[28] 그러나 신앙 공동체로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화되고 기구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변형되고 순수 인격적 공동체로부터 기구적 조직교회로 변질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교회 변질로 부터 에클레시아되게 하도록 촉구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 는

---

28)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p. 99.

슬로건을 내세웠다.[29] 브루너가 인격적 공동체에서 교회본질을 파악한 것은 옳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조직과 기구적 특성을 지나치게 희생시키고 있다. 신앙공동체로 유기체적 교회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조직체적 교회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30]

3) 위르겐 몰트만의 敎會觀

몰트만의 교회이해는 메시아적 교회다.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에서 그가 말한 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에 입각하면서도 새로운 것이다. "교회는 의롭게 인정받는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받은 자와 그리고 감사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31] 몰트만이 이해한 교회는 해방된 자의 공동체이며, 회개하는 자의 공동체이며, 희망하는 자의 공동체이다.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한 강조점은 조직체적 교회를 소홀히 하여 양자의 균형을 잃고있다. 브루너나 몰트만에게서 조직체적 교회에 대한 이해는 적절하지 못하며 이러한 경향은 21세기 중반이후 계속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후 공동체적 측면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교회 역사에 나타난 교회이해를 살펴볼 때, 공동체적 유기체로서 교회이해와 조직체적 기구로서 이해하는 이상적인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단순히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해가 되

---

29) 「상게서」, p.99.

30) Hendrikus Berkhof,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Michigan : W. B. Eerdmans.1973), .394. 이점은 브루너에 대한 다음의 평가에서 드러난다. "At the same time Brunner took a much more radical and anti -insti- tutional direction : see Dg Ⅲ, pp. 3 -133".

31) 김영한, 「전게서」, p.373.

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일변도로 교회가 이해될 때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초대 교부들과 중세 로마 카톨릭에 도전하는 자들, 재세례파 그리고 현대의 브루너에게서 발견되고, 후자의 경우는 키푸리안과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나타난다.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을때 많은 오점을 교회 역사속에 남기고 말았다. 그 역사적인 예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와 거기에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재세례파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극단적인 조직체적 교회의 모순을 드러낸 로마 카톨릭은 신앙 공동체로서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였고, 제도적 교회를 극단으로 반대한 재세례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조직과 제도적 요소들을 희생시켰다.

Ⅲ. 敎會 組職運營의 實態

본 장에서는 교회 조직의 정치제도 실태와 교회 조직운영의 실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敎會 組織의 政治制度 實態

現在 우리 周邊에는 여러 形態의 敎會組織들을 볼 수 있다. 어떤 교회에서는 君主制的 組織을 갖고 있으며, 어떤 교회는 組合制的 組織으로 構成하고 또는 監督制 或은 代議員制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유형별로 分類하여 比較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1) 監督制 制度

감독제 조직은 교회 최고의 재판권이 監督會議가 장악하고 있는 敎會 政治體制를 말한다.

(1) 로마 카톨릭 교회

보통 서방 교회라고 불리우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바티칸 공의회 第 4次 會議에서 공포된 敎會法 (Constitiuo Dohomatica priona de Ecclesia christ, 1870. 7. 8)에서 로마 敎皇만 카톨릭 교회의 最高 스승이며 最高主權者라는 것이 재삼 강조되었다.[32] 憲法 第 3장은 로마 카톨릭 敎皇權의 권

---

32) 유순하, '장로교조직에 관한 연구', (서울 장로교신학대학원, 1975), p. 35.

위의 本質에 관한 조목이다. 敎皇은 감독자나 方向提示者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信仰, 道德, 訓育, 政治 및 교회 구조 등 모든 면에 걸쳐서 主管할 수 있는 최고의 權威者로서 일한다. 교황의 권위는 완전무결하다 함으로서 모든 교회와 信者들과 敎役者들은 이 권위에 服從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상의 사실을 認定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져 있다.[33] 교황은 명실공히 카톨릭 교회의 최고 감독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교회를 지도 감독해 나간다. 이와 같은 면에서 카톨릭 교회체제는 감독제 조직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에 있어서 전 카톨릭 회의인 Ecumenical Council 도 교황 (Pope)의 권위보다 큰 것이 아니며 다만 그를 보좌하기 위한 기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34]

(2) 희랍 正敎會

감독의 기원과 감독이 使徒의 계승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과 다른 점으로는 로마 교황을 承認하지 않고 그를 가르켜 「地位를 빼앗은 者」라고 비난한다.[35]

(3) 英國敎會와 美國 監督敎會

高敎派와 低敎派가 있는데 고교파에서는 감독에 대하여 가지는 관점이 로마 카톨릭과 동일하다. 교황은 인정하지 않으나 감독은 按手받음으로 使徒的 傳統을 인정한다. 감독제 조직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알고 따르는 반면에 저교파는 감독제 조직의 형태가 필요는 하지만 절대적이라고는 하지 않

---

33) 지원용, 「신구 교회의 구조연구」, (기독교사상 10책 1호, 1966), pp.21-22.
34) 조동진, 「교육행정학」, (서울 : 창문사, 1964), p.28.
35) 유순하, 「전게서」, p.36.

는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조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36] 以外에도 리폼드에코스피칼 교회 (Reformmed Episcopal Church), 모라비안 교회, 루터교회, 리폼드교회, 미국 메도디스트, 한국 감리교회 등이 모두 감독제 조직에 속한다. 이상과 같은 형태의 교회 등에서는 역사적 감독제도 혹은 고위의 敎職者 특히 감독의 권한에 관한 헌장을 중요시 하나 감독은 전통의 수호자이며 교회의 권위를 위한 최고의 仲裁者라고 인정한다. 이 조직체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감독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37] 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중에는 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교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감독이 필요하며 감독없는 교회란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38] 감독제의 특징은 막료조직이 아니고 系線組織이다.

2) 會衆 制度

이 조직체제는 회중교회, 침례교회, 그리스도의 제3교회 등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조직의 시초는 1550년 영국에 있어서 영국 교회로부터 분리된 자들이 모여서 성례전을 집행하였고 기타 엘리자벳 1세의 교회개혁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이에 가세하여 교회의 국가로부터 독립과 각 개교회의 자치제 조직을 주장하였다.[39]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모든 교회의 행위는 그의 뜻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 교회는 독립적이며 외부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40] 敎職制로는 牧師, 長

---

36) 「상게서」, p.37.
37) 도널드. 지. 멀러,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상증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2), p.163.
38) 유순하, 「전게서」, p.37.
39) 「상게서」, p.38.

老, 執事 등 세 종류의 직분만 두었고 목사는 전체교회에서 선출되며 교회 밖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행정조직의 특징은 개교회의 독립의 강력한 실천에 있고 교회사업은 회중들에 의하여 위임된 위원회에서 관장된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회중의 투표없이는 위임이 되지 아니하며 개교회 이상의 어떤 上會도 인정되지 않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현재 회중파는 세계에 전파되어 있다. 이 조직은 계선조직인 감독제 조직과는 正反對로 막료기관의 유형처럼 회중들이 직접 명령하거나 一線의 일을 담당하지는 않으나 그 영향력은 매우 큰 것이다. 그러나 계선기관과 참모기관은 서로 보완하는 것인데 이는 계선기관이 무시됨으로 보완 협조체제가 아쉽다.

3) 長老 制度

이 제도는 代表 制度의 교회이다. 개체 교회의 治理기관인 堂會가 교역자와 장로 (一般 信徒중에서 일반 신도가 선출한 신도의 대표) 로 구성되며 당회의 상회가 되는 老會도 노회의 회원인 목사와 교회에서 統代 (代議員) 로 파송되는 장로로 조직되고 장로교회 最高會인 總會도 목사와 장로의 同數로 조직하여 長老會가 유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장로교회 체제는 代表制의 조직이다. 장로회라는 말은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서 교회 일을 의논해서 民主的 方式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였다.[40] 이런 體制

40) 대한기독교서회, 그리스도교 대사전, (서울 : 기독교서회, 1972), p.1210.

41) Henderson : Presbyterianinsm. p. 95.
손병호, 「장로교회사」, (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80), p.121. 인용

가 구현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이다. 장로회 (Presbytery) 라는 단어가 영어로 문자화되기는 1573년 론돈의 산디스 (Sandys) 에게 쓴 글에서 「모든 교구는 그들의 노회가 있고」로 나타났다. 그리고 며칠후에 일리 (Ely) 의 리챠드 콕스가 그의 친구에게 쓴 서한에서 「목사와 그의 노회」로 쓰여졌으며, 1610년에는 뤼 (Rhine) 大會에서 「회중과 노회」라는 말을 사용하였다.[42] 그후 1550년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장로회라는 말을 토마스 나쉐 (Thomas Nashe) 라는 사람이 에베소 4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언급하였고, 1592년에는 「스코틀랜드 장로회의의 기원 (The Origins of Scottish Presbytery) 이라는 팜플렛에서 명시되었다. 이리하여 장로회주의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566년 죠지길레스피 (Georg Gillespis) 가 쓴 리크리미네이션스 (Recriminations)」에서 처음 나타났다. 그는 특별노회 (Particuler persyteries) 와 고전적 노회 (Classical persbyteries) 라는 말을 제네바 예식서의 교회재판 (Consistory) 에다 적용을 시켰다. 그 후 장로교회를 論할때마다 思想的인 것을 다룰때면 반드시 장로회주의를 말하게 되었다.[43]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장로교회의 신학사상 그리고 행정방침을 통틀어 장로회(Persyterianism) 주의라 말한다.[44] 이리하여 카톨릭 교회와 다르고 초대교회와 같은 장로회제도를 오늘에 확립한 것이다.

장로회 특징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장로회조직을 계선기관으로서 머리를 그리스도라 한다. 이 말은 성경진리를 교회통치의 최고 권위로 삼으며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

42) 손병호, 「상게서」, p.121.
43) 「상게서」, p.122.
44) 「상게서」, p.124.

협의하며 결정한다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교회나 감독제 교파와 같이 神처럼 완전할 수 없는 자연인에게 절대적 권한을 주지 않고 全體 敎人이 선출한 장로와 특정한 신학적 교육과정과 신앙적 훈련과정을 거쳐 소정의 자격을 인정받은 목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치리하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2) 이와 같은 체제는 모든 교인이 장로와 집사를 선거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회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각각 자격에 따라 上記 各 會議에 참여하여 교회의 許多한 부서에 참여 봉사함으로 교회를 ① 교인에 의하여 ② 교인의 ③ 교인을 위한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운영관리를 靈的 側面에서는 ① 성령에 의하여 ② 성삼위 하나님의 ③ 오직 하나님을 위한 운영만이 궁국적으로 사람들에게 참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3) 共同會議와 같이 敎人 全員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고

(4) 諸職會와 같이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등 모든 在職者가 교회일에 참여하는 모임이 있다.

(5) 당회와 같이 敎役者와 장로 (전교인의 대표) 가 모이는 기관이 있다.

장로교는 이 세기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교회가 정상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이 체제야말로 보다 민주적인 보다 합리적인 조직체제이다. 이 체제는 수평조직과 수직조직을 같이 가지고 있으며 개교회는 一定 地域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老會를 조직하고 이 노회들이 전국적으로 연합하여 총회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2. 敎會 組織運營의 實態

諸敎會의 조직체 중에서 장로교회가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조직체임은 이미 記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조직내의 모든 직분은 奉仕職이지 權威職이 아니다. 즉 당회, 노회, 총회는 권위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중에 누구던지 크고자 하는 者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중에 누구던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人子 (예수님 자신을 가르킴) 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自己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45]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46] 以上과 같이 성경의 교훈과 정신에 의하면 모든 직분이나 기관을 섬김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며 권위주의적 군림이 아님을 明白히 하고 있다.

교회는 어느 특정한 인물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한몸의 상호봉사하도록 조직되어진 체제이다. 뿐만 아니라 이 조직체는 부단히 자기 검토와 수정 및 改革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1) 當會

당회란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로 구성되는 기관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제안하여 합의하에 교회를 민주적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

45) 신약성경, 마 20: 26 -28.
46) 「상게서」, 막 9 : 35.

같이 조직의 優越性에도 불구하고 당회의 운영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간에 의견의 대립과 마찰이 야기됨으로서 합리적인 의견의 일치를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올바로 수행되지 못하고 성경의 기본 교훈에서 벗어날 때 교회는 빛을 잃은 등이 되고 맛 잃은 소금이 된다고 하겠다.

2) 堂會의 運營

長老會 主義란 敎役者와 一般信徒가 함께 參與하고 제안하여 合意下에 교회를 민주적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이 體制는 가장 民主的이고 바람직한 조직이라는 점을 앞에서 論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당회의 운영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간에 의견의 대립과 마찰이 야기됨으로서 합리적인 의견의 일치를 기하지 못하고 그 결과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치 못하는 실정이 있다.

合理的으로 組織된 당회를 관리함에 장로와 合意하여 民主主義 方式에 의하면 문제점은 극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합의되기까지가 問題가 되는 것이다. 勿論 극심한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問題性이라던가 利權이 개입된 것은 아주 난항을 거듭해야 한다. 때로는 정회, 휴회, 보류, 부결 등으로 비능률성이 많은 고충이 온다. 例를 들면 모교회에서 부목사 또는 부교역자 내지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지연관계 等等이 얽히고 설키어서 決定짓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감독제 조직」이 長點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로가 정실을 떠나고 自己의 직분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하고 당회에 임하면 어려울 것이란

하나도 없다. 물론 목사 (당회장) 의 리더쉽 문제도 있고 장로의 관료주의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섬기는 종의 자세로 돌아갈 때에는 합리적인 당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當會의 構成員인 牧師는 모름지기 권위의식을 갖고 있고 이 권위의식은 교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前術한 바와 같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다. 조금도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말고 오직 羊무리의 本이 되라」[47] 성경은 어디까지나 주장하는 자세를 禁하고 있다. 목사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름을 받고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거쳐 按手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로서 누구던지 이 과정만 거치면 목사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의 다음과 같은 태도는 長老會 主義를 파괴하는 問題點으로 등장하고 있다. 첫째, 목사의 권위주의적인 行態이다. 성경은 맡은 자의 자세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本이 되라」고 가르치며 맡은 자들의 권위의식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목사직으로서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데서 오는 우월성이 이러한 의식을 갖게 했고 또한 이러한 잘못된 의식이 반발, 저항, 마찰 등을 야기시킴으로서 당회운영의 난맥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둘째, 당회 會議召集 回數이다. 교회 헌법에는 당회소집을 年 1回 以上으로 규정함으로서 당회간의 의견조정과 합리적인 합의를 위한 충분한 접촉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셋째, 聖職者로서 목사의 品位失墜를 들 수 있다. 最近 목사들이 세속적인 허영으로 인하여 使徒의 계승직 遂行을

---

47) 「상게서」, 벧전 5: 3.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와 신도들로부터 信賴를 잃고 있다. 목사는 사도의 繼承職이다. 그러므로 祭司長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사도의 계승직으로 그 신망을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들을 위하여 獻身하는 목사를 존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

또한 당회원인 長老職의 起源과 職務를 밝힐 필요가 있다. 장로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아브라함의 진실한 청지기를 들 수 있다.[48] 그러나 구비한 공식적인 명칭인지는 分明치가 않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중에 권위를 가진 인물들로 알려진 것은 분명하다. 이것을 알렉산드리아 번역자들은 히브리말로 「에트지케네 이스라엘」, 헬라어로는 「헤 게루시아 이스라엘」(presbytery of Israel) 로 번역하였고 이를 거듭 사용하였다.[49] 하여간 일반적으로 장로의 기원은 「權威」의 상징에서 출발했다고 본다.[50] 이제 다음에서 성경에 나타난 구절에서 장로직의 발전과정과 직무를 밝히고자 한다.

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장로 (출 18: 13- 27)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曠野의 共同生活이 참으로 어렵고 또 무질서했고 어려웠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48) 구약성경, 창 24 : 2 (우리말 성경에는 장로의 뜻으로 번역되지 않았다. 영어성경에는 his elder of his house.
49) Ibid. 출 3: 16-18, 4: 29, 12: 21.
50) 오신주, '이상적 장로에 관한 연구'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원, 1976), p. 10.

하느냐? ....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51] 이와 같이 혼란한 처지에서는 모세 혼자서 60만 대중을 인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권고하여 모세에게 協助者를 두도록 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重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52] 「계속하여 협조자를 택하는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不義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百姓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53] 以上의 引用에서 장로의 行動 方向이 무엇이었던가를 유도해 낼 수 있으며 또한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며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이니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54] 의 말씀에서 長老制度의 發展過程과 그의 職務가 무엇이었던가를 提示했다.

나) 신명기에 나타난 장로

「그때에 내개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現在보다 천

---

51) 구약성경, 출 7: 2- 4.
52) 「상게서」, 출 18: 17.
53) 「상게서」, 출 18: 21.
54) 「상게서」, 출 18: 22.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福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有名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에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정할 것이며 그들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55]

모세는 허다한 이스라엘의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兄弟중에 송사를 들을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수 있는 자를 택하게 했는데 저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이어야 했고, 저들은 각 지파의 두령이요, 同時에 저들의 어른 (장로) 들이었다. 저들은 絶對 공정해야 했고, 他國人에까지 법은 공정히 적용되어야 했고 결코 재판에는 외모를 보지말고 귀천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되었다.

다) 민수기에 나타난 長老

민수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許諾한 長老는 출애굽보다 더 明確하게 장로에

---

55) 「전게서」, 신 1: 9- 18.

대한 發展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출애굽에서는 모세를 돕기 위한 方案으로서 그 명칭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등으로 되어져 있었으나 민수기에 이르러서는 장로라는 名稱이 그대로 주어졌다. 다음에 보면 「責任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5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老人중 百姓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너와 함께 말하고 네게 임한 神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혼자 지지 아니하리라」[57] 여기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처음으로 長老의 制度가 생겼다. 출애굽기의 천부장, 백부장 제도가 長老의 制度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發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以上 말씀에서 長老의 「직분」을 분석 검토하건대 (A) 출애굽기 18장과 신명기 1장에 의하면 長老選擇 目的은 주로 民事裁判을 위해 모세의 협조자를 피택하는 것이 있고, (B) 민수기 11장에 의하면 70人 長老의[58] 피택은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9절, 11절과 비교하여 볼 때 여기서는 주로 종교적인 일에 관하여 모세의 협조자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24장에 의하면 70人 長老들의 職務度는 다음과 같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長老 70人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5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長老 70人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아래는 청

---

56) 「상게서」, 11: 14.
57) 「상게서」, 11: 16- 17.
58) 70人은 이스라엘 12지파중 각 지파에서 6명씩 擇한 것으로 본다.
59) 「전게서」, 출 24: 1.

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60]

출애굽기나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長老를 擇한 目的은 協助者로서 택했다. 그 內容이 民事이건 宗敎的이건 長老는 협조자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根源的으로 살펴볼 때 長老는 협조자이다. 그런데 오늘날 長老는 협조자로서의 職務를 이탈하고 견제자로서와 統制者的 職分을 구유한 듯한 행태를 볼 수 있다. 이에 長老가 그의 傳統的이고 근원적인 직분만을 다하고 변질된 기능을 바로잡지 않는 限, 이로 因해 발생하는 當會의 問題點 解決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라) 新約에 나타난 長老

新約에서 長老에 關한 言及은 執事보다 더 늦게 나타난다.[61]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의 굶주린 동료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제금을 내었을 때에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한 일이 있다.[62] 新約聖經에 와서는 이때부터 長老들이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라이트프트는 主張하기를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공직에 임하기는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거나 宣敎 活動을 벌리려고 나가고 없는 사이에 長老들은 使徒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까지는 代行하는 일이 이때부터 始作되었다고 주장한다.[63]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不在時 長老들이 그들의 일을 대행했던 것은 사실이다.[64]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교회

---

60) 「상게서」, 24: 9- 10.
61) 유순하, 「전게서」, p.14.
62) 신약성경, 행 11: 30.
63) 손병호, 「전게서」, p69.
64) 「전게서」, 행 11: 30.

에 봉사했다.

舊約時代에 있어서 長老는 회중의 代表者요, 이스라엘의 指導者 모세의 협조자였었다면 新約時代에는 長老는 일손이 크게 모자랐을때, 地域的으로 時間的으로 사도들이 不可能했을때, 그 일을 대행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2장 28절 以下에 「하나님께서 교회안에 여러 직분을 두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預言者요, 셋째는 敎師요」라며 언급한 以後 사도들이 죽어가고 교회의 관리자가 長老들로 뿌리가 내려질 때에 「남을 잘 지도하는 長老들을 倍나 존경하시요.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65] 들을 더욱 존경하시요」[66] 長老는 두가지 일을 하였다. 지도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일을 하다가 사도들이 다 世上을 떠날 즈음 교회의 職分은 다른 양상을 띠기 始作한 것이니 교회에 보다 사도적인 직분이 必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지금까지 明確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牧師職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목사직은 교회가 조직된 때 처음부터 교회직분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목사직은 후에 와서 사도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비로소 사도의 직분을 맡기기 시작함에서부터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직은 사도직에 根據를 두며 사도의 계승자가 바로 목사인 것이다.[67]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사도들처럼 가르치며 牧會를 하는 이를 목사라는 칭호로 부르게 한 것이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등의 칭호로 區別하여 부르게 한 것이 카톨릭 교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나 디도를 사도라고도

---

65) 가르치는 장로란 오늘의 敎師를 말함
66) 「전게서」, 딤전 5: 17.
67) 손병호, 「전게서」, pp. 74- 75.

하지만 오늘날의 목사인 것이다. 이들은 사도의 직분을 계승했다고 믿는다.[68] 이상과 같이 長老職의 기원과 職分에 관하여 歷史的으로 考察한 결과 장로는 직분이 협조자인 동시에 代行者였다. 이것이 長老의 직무였고 牧師는 使徒의 계승자임[69]을 以上의 분류에서 고찰하였고, 장로가 그의 고유직분인 협조자 및 대행자적인 役割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으면 問題點의 발생방지 및 그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로의 職能 外的인 작용과 非合理的인 원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사의 지나친 권위의식에 대한 의식적인 반발이며,

둘째, 장로의 자기 소외감에서 기인한 갈등의 해소책이며,

셋째, 장로직에 대한 인식 부족과,

넷째, 한 교회에서 오래 봉직한 장로의 관료적인 근성과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목사의 권위의식과 장로의 관료의식과의 마찰이 문제 야기의 直接的인 原因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언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存在하는 특유의 長老會 長老聯合會 등의 출현은 목사와의 협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않는 한 基督敎 敎理에 違背된다는 것이다.

3) 諸職會

長老敎會 憲法에 의하면 諸職會 組織은 支敎會 당회원 (목사와 장로)과 執事를 합하여 諸職會를 組織하여 會長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書記와 會計를 選定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

68) 「상게서」, p.77.

69) 「상게서」, pp. 64, 75- 77, 94- 98, 125.

여 서리집사와 전도사와 권사, 전도인 등에게 제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70]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직회의 직무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구제와 경상비에 관한 사무와 회계에 관한 일은 모두 제직회에서 처리하며 제직회의 決意에 의하여 會計사무를 執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직회는 每年末 共同議會에 일년간 처리 상황과 수지결산을 보고하며, 회계는 위촉된 감사위원에게 장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71] 제직회의 직무는 財政管理와 救濟와 奉仕이다.

4) 諸職會의 運營

제직회의 本然의 姿勢는 어디까지나 順從의 자세이어야 하고, 봉사가 본질적 임무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제직회가 마치 세속적인 政治會議에서 行政權을 갖고자 試圖하고, 治理權을 장악하려는 발언이나 획책을 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것은 非聖經的이고 非信仰的이다. 다만 교회 운영이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하여 善意의 建議나 協議가 있는 것이 좋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교회의 제직들이 당회와 각 부서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해야 불평불만을 解消하게 된다. 그러나 故意的으로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거짓말로 敎友들과 교회의 목사, 장로들을 離間 對立시켜 分爭을 일으키려는 자들은 권징조례에 따라 교회에서 내쫓아 버려야 한다.[72] 제직회에서 決議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수에 의해서 결의해 버리려는 敎人들이 間

---

70)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판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서울 : 대한 예수교 출판부, 1969), 21장 3조 1항.
71) 장로회 헌법, 「상게서」, 21장 2조 3항.
72) 신약성경, 고전 5: 11- 13.

或 있다. 이는 제직회의 직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제직원이 제직회의 직무를 모르는 것은 목사, 장로가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가르쳐 주고 訓練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목사 자신이 알지 못하고 제직회의 所管이 아닌 것을 제직회에 상정토록 허용하거나 목사가 제직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을 제직회에 의견을 묻거나 하여 제직들을 誤導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목사와 장로들은 機會가 있을 때마다 헌법이나 政治問答條例를 설명하여 교인들을 敎育하여야 한다.

제직회의 定期會는 "每月 1回 또는 年 4回 以上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73]" 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헌법상 규정에 의하면 매월 한번씩 열거나 1年에 4회 즉 春, 夏, 秋, 冬 四 季節에 한번씩만 모여도 무방하다. 또 치리회가 아님으로 많이 모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거의 한국 교회가 月 1回 (매월 첫주는 제직회 주일로 거의 정하고 있음) 정기회로 모이고 있다. 게다가 임시 제직회까지 합치면 주 1회씩 모이는 수도 있다. 그러면 목사인 경우는 月 平均으로 당회 (1회 제직회, 1회 각종 전도회, 청년회 등) 회의를 주관하는데 과다한 負擔을 안게 된다. 목사뿐 아니라 제직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不必要한 회의를 여는 것은 民主主義원칙에도 능률의 원칙에도 모두 배치된다. 제직들과 일반 교인들이 교회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잘 알도록 광고를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인들이 明白히 認識하고 協力을 필요로 하는 主要 안건을 제직회에 상정하여 논의 결정하는 것은 교인들이 교회일에 대한 이해와 협

---

73) 장로회 헌법, 「전게서」, 21장 2조 2항

력을 促進시키는데 유익하다. 목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과다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권한의 위임과 사무적인 업무를 장로들이 分擔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바람직하다. 특히 주일 설교준비를 위하여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목사에게 사무적인 업무나 기타 一切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회와 제직들과 전교인들의 협조를 促求하여야 한다.

제직회가 財政管理와 救濟奉仕가 주 임무임으로 2 -3개월에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그 外에는 關係部署 責任者의 지시에 의하여 奉仕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구제와 경상비에 관한 사항들과 금전 출납을 모두 제직회에서 처리하여 회계하는 제직회의 의결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로 교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제직회의 主務는 재정과 구제 봉사하는 일을 심의하여 가부를 의결하고, 집행하며, 명령을 내리거나 제시할 수 있는 행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당회가 결의한 것을 집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향이 간혹 나타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1) 제직회의 부서조직

제직회에서는 부서 조직이 필요없다고 생각된다. 만일 있어야 한다면 헌금 수납 정리를 위한 재정부와 제직회때 재정 보고를 위한 회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외에 제직회 소관이 아닌 부서를 둠으로 해서 제직원들로 하여금 행정지시도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지시하려 하고, 심지어는 제직회때 반대를 위한 반대와 거부행동을 일으키게 하며, 동료를 포섭하여 다수주의의 횡포를 꾀하며 목사의 조력자가 아니라 목사의 의견에 견제자가 되게 한다. 그래서 직무를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 그러므로 관장사무 이외의 불

필요한 조직을 시정하고 이런 오해와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회는 분과 위원회제를 둔다.

현체제로서 교회의 중요한 의결기관으로는 당회와 제직회라고 할 수 있다. 공동의회도 있으나 1년에 한번 기능할 뿐 별로 크게 활용되지 못한다. 당회에서는 치리회로, 제직회는 재정문제와 봉사문제로 자주 모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회의 체제가 당회는 치리권을 갖고 제직회는 재정권을 갖고 그외에 교회 운영상 필요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과 위원회제를 두게 해야 한다. (예: 건축, 대지구입, 예배, 교육, 음악분과 등). 이 분과들은 제직회와 같은 비중으로 두고 위원장은 목사나 장로로 하고 성질에 따라 집사중에서도 할 수 있으며, 분과 위원은 제직이 아닌 입교인이라도 공동의원인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게 하여 명실공히 長老會 主義에 입각한 일반 신도들이 대거 교회 운영에 참여하게 함이 교회발전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어진다.

Ⅳ. 敎會 組織運營의 改善方案

본 장에서는 교회 조직운영의 일반적인 실례, 발전 지향적인 교회 조직 운영, 합리적인 교회행정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 敎會 組織運營의 一般的 實例

서울과 지방의 6개 교회를 사례로 들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서울 강남구 K 교회는 감리교단중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고 교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를 비롯한 전문 연구가들의 교회 성장이론을 한국에 적용 실천하므로 가장 성공한 교회로 인정받고 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신념아래 교파를 초월한 전국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통해 교육하는데 카톨릭 신부까지 참여하고 있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70] 오늘날 사회는 모든 것이 과학화되어 가고, 다원화되어 가며, 기능화되기 때문에 목회에도 과학적인 처방이 없이는 성장이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즉 목회에서도 사회학, 심리학 등이 동원되어야 하며, 특히 조직과 관리를 위하여 경영학적인 연구가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71] K 교회는 "모든 인간을 기독교인화하기 위해서 교회성장은 당연하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그리스도

---

74) 강정규, 「한국의 7대 교회」, (서울 : 종로서적 출판사, 1983), p.17.
75) 「상게서」.

의 지상명령이므로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며 영적 은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한국 교회의 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가능성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주는 지능적 사고의 목회 방향에 초점을 두고 미래 지향적인 기본 원칙위에 설계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S 교회의 경우는 아파트 지역을 그 선교대상으로 1977년 10세대가 모여 기도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십여년이 지난 오늘날 5천명 이상의 교인을 확보하고 있다. S 교회의 특징은 등록교인이 스스로 등록의 필요성을 느껴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지 등록을 안내하거나 재촉하는 기구가 없다.[76]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부부 등록률이 지극히 높다. 또한 남자 교인이 45퍼센트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석교인의 교육수준을 살펴 보면 대졸출신의 교인수가 전체 장년교인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교회의 목회 방향은 목회자나 신자의 인간적 교류, 보이지 않는 목회, 한번 와서 들어 보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그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 영혼속에 가장 깊이 심방해 들어가는 "전자파의 채널로서" 당신을 이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적이 아닌 것은 과감히 제거하는 것, 이것이 S 교회의 지향하는 바 그 목회전략이고 그 실제는 말씀의 육화라는 가장 근원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교회는 지향적인 의지가 집약되어 말씀의 터전위에 선교의 근본 자세를 이 시대의 문화권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서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 좌표와 아울러 그 현

---

76) 「상게서」, p. 61

실적인 가능성을 밝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 중심부의 Y 교회는 1945년 북에서 피난 온 27명의 성도가 모여 첫 예배를 드리고 1946년 11월 12일 경기 노회에 가입하면서 고향을 버리고 피난온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피와 눈물로써 세운 교회로 "피난민 연락소"를 교회안에 마련하고 신문, 라디오 교인 명부, 기타 다방면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찾아주는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 초창기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서로 봉사하며 사랑을 뜨겁게 나누던 교회였다. Y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한국 교회의 상징적인 교회로 부흥된 것은 당시 H목사의 훌륭한 목회자 상과 지도력의 역량때문이다. 특수한 설교와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원칙을 균형있게 운영하고, 해외선교를 위한 선교사 파송, 교회 주변 직장인을 위한 매주 금요일 정오예배는 특별한 목회 현상이다.[77] 학원 선교를 통한 후배 양성과 맹인들을 위한 점자 찬송가, 일반 신앙서적, 일반 전도지를 발행하여 1년에 한차례씩 온 교우를 총동원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간증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본 교회의 특징중 하나이다.

서울의 C 교회는 1952년 6월 부산 피난 성도들의 능력으로 장성하게 이룩된 교회이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 같이, 부산 앞바다에 밀려 빠졌어야 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들을 서울로 다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이다.

천국 일꾼 양성의 꿈을 키워 보겠다는 목표아래 교육에 역점을 두고 주일학교 운영의 체계화와 교회학교와 각부 주일학교 교사들의 교육은 어느 교

---

77) 강정규, 「전게서」, p.152.

회 못지 않게 심혈을 기울인다. C 교회는 교회 양성 기구를 상설로 두고, 각 부의 독자적 프로그램이 있으며, 또한 전 교인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는 본 교회 연중 행사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교역자의 품성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훌륭한 목회자의 만남과 성경중심의 설교는 "심는대로 거두리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될 것을 강조한다. 열심히 드리는 기도,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세를 배움으로서 훈련된 기도 생활, 무릎꿇고 겸손히 드리는 기도, 조심해서 드리는 기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 욕심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온 교우들은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적인 유명한 목회자들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두 시간씩 기도 드리는 습관을 길러 주었다.[78]

C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강력히 알려줌으로써 흔히 범하기 쉬운 자기 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즉 "주옵소서" 라는 요구로 일관되어 있는 기도를 이웃을 위한 기도로 전환하도록 일깨워줌으로써 기복 신앙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이 교회가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전통은 올바른 예배 자세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광주 J 교회의 특성을 살펴 보자.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에 있는 J교회는 호남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1917년 광주 제일 교회에서 분립해서 첫 예배를 드렸다. J 교회의 교세 확장을 위한 선교의 3가지 중요한 무기는 설교, 조직, 교회행정으로 압축할 수 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메세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

78) 강정규, 「전게서」, p.191.

전하고, 듣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조건을 아무리 훌륭하게 갖춘다 하더라도 메세지에 능력이 없고 방향이 옳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핵심에 병이 들었다고 본다. 이 교회는 보수적이고 설교는 극히 복음적이며 후임자 물색에도 설교를 제일 중심적으로 검토 선정했다고 한다. 특히 설교의 본문은 같은 경우라도 내용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1년동안 설교제목과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여기에 준해서 설교준비를 하는 것이 특성이다. 목회 경영학, 교회 행정학을 총동원해서 목회자와 교인관계 또는 교인들의 의식자체가 성령에 충만하면서도 사무적이고 조직적이라는데 정평이 나 있다.[79]

대구의 S 교회는 1895년 12월에 미국 선교사 안의와 목사가 전도를 시작하여 1900년 남문안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목사의 목회지침은 "물"을 생각한다. 물이란 날카로움도 없고, 할퀴는 손, 발톱도 없으며, 물어뜯는 이빨도 없다. 그렇지만 물은 목적을 떠나지 않고, 목적지로 향하여 가다가 막히면 옆으로 돌아가고,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앞과 옆이 막히면 물은 쌓여 그 위로 넘어간다. 물은 강제적인 힘이 없더라도 항상 그 목적지를 향하여 꾸준히 나아간다.

물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목회하는 L 목사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못본체하고 내버려두면 대부분 제풀에 꺽여 문제가 사라져 버린다고 말한다.

또 한가지는 목회자가 교인들과 사사로이 사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역자는 어디까지나 교역자로서 양을 돌보는 책임을 다할 때 단상에

---

79) 강정규, 「전게서」, p.246.

서의 말씀이 권위를 갖게 되고 교인들이 그에 따르고 신임해 줌을 반증하는 좋은 요인이 된다. 특히 이 교회는 부모 유산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식들에게 돈보다 교훈을 중심으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주는 유산을 상속시키지 않고 고아원이나 교회 자선단체에 기증하는 풍토를 기르고 있는 것이 여느 교회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2. 發展 指向的인 敎會組織 運營

발전 지향적 교회의 특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통점도 있지만 교회 나름대로 목회자 개인의 지도력에 따라 교회성장의 비결을 달리하고 있다. 한 목회자가 교인을 관리할 수 있는 숫자는 150명에서 200명 선인데 비하여 교인수에 비해 교역자 수가 적은 편이다. 교회가 소집단 활동을 통해 초대교회의 친교를 되찾고 현대인의 심적 욕구에 부응하며, 사회구조나 조직에서 오는 갈등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야 한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고통과 질병에서 건져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소교회는 사실상 사람을 낚아 그리스도앞에 인도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들이 있다.[80]

1) 소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간에 성실한 교제를 육성할 수 있다.

2) 모든 교회생활에 전 신자의 개인적 참여를 위한 기회가 주어진다. 즉 지정된 몇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우가 각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80) 조동진, 「교회행정학」, (서울 : 크리스챤 헤럴드사, 1981), p.35.

3) 개개 교우는 철저한 기독교 신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과 생활의 훈련을 할 수 있다.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목회영역을 넓혀서 닫힌 교회로서가 아닌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하며,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낮아야 한다. 대집단층의 맘모스적 대형화 교회는 아파트 중류층의 소외감을 달래주는 지적 유희의 장소뿐이라고 혹평받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은 다닐수 없다는 비난을 그렇게 쉽게 간과해 버릴 수는 없다.

장년교인 90퍼센트 이상이 대학출신이고, 대부분의 교인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것도 사실이며, 교회가 개인 심령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을 철저하리만큼 강조하면서 사회 정의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는 등한히 해왔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기주의적이요, 개인주의적이며, 현실도피적이요, 염세적인 인상을 불신사회에 주어왔다.[81] 즉 나하나만 충실하고 안락한 가정을 꾸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천당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로 키워져 왔다. 이것은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또한 교회의 대형화에서 빚어지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최근 매스미디어들이 교회 자체의 미래성에 따라 상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교회를 향해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자체 교회확장 중심으로 헌금을 걷고 자체 교회만을 확장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마을이나 농어촌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비판의 소리이다. 또 개척교회를 해도 자기 교회의 간판을 붙이는데 주식회사 지점망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러한 비난의 소리가 전적으로 비대해

---

81) 조동진, 「전게서」, p.158.

진 교회에 해당된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 비판받게 되는 근본적 요인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형화 교회의 문제점중 가장 심각한 것의 하나는 코이노니아 (친교) 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목회자가 양떼들을 잘 알지 못하고 제직들과 제직들간에 서로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제직간, 신자들간의 충분한 친교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장을 해야 하되 이론적, 신학적 뒷받침위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정신이 건강한 것처럼 육체도 건강해야 하지만, 각 지체간의 균형을 잃게 되면 기형이 된다.

흔히 뜨거운 열정만을 가지고 성장을 추구할 때는 균형이 깨어진다. 성령만 충만하고, 성부. 성자의 모습이 사라지는 교회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를 통한 신학적 깊이와 높이가 같이 따라가야 한다.

끝으로 한국 교회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수한 질병이 대단히 많은데 이를 간추려 본다.

첫째, 동질성 응결증이다. 이는 농어촌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씨족끼리 혹은 부족끼리 동질의 사람들이 굳게 결속되어 있는 경우이다.

둘째, 지역사회 변천 쇠퇴증이다. 서울 도심의 경우 외곽지대가 발전해 주민들이 옮겨가고 각종 시설도 초점이 옮겨지는데, 교회가 쇠퇴해 가는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성장할 수 없다.

셋째, 사회층별 거부증세이다. 교인들에게 어느 특수 계층이 이루어질때 거부현상이 일어난다. 교수들 모임에 동대문 옷장사가 어울리기는 힘들다.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넷째, 개척자 주권증이다. 교회는 개척할 때 몇몇 교인이 공을 세웠다고 해서 "이것이 내 교회이다" 라고 텃세가 심한 교회는 병든 교회이다.

다섯째, 협동 과잉증을 들 수 있다. 지나친 협동을 주장하면 교회에서는 부작용이 생긴다.

여섯째, 친교 과잉증이다. 교회가 친교가 없으면 발전이 안되지만 끼리끼리 모여서 노는 데만 열중해 버릴땐 부흥이 되지 않는다.

일곱째, 영적 발전 제한증이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영적 발전이 있어야 한다. 영적 활동이 제한되면 생명력이 없고, 개척자가 손을 뗄 때 쇠약해진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어느 교회나 모두가 안고 있다. 결정적으로 부유층 교회의 교우들은 물질적 풍요가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가 정신적 공허에 빠져 있다. 부유층일수록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와 같이 정신적 질환은 육체도 함께 병들게 해 간질환, 당뇨, 고혈압같은 성인병을 유발하고 있는 예도 많다. 이들은 치료를 원하고 있다. 이같은 문화병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음으로 영적 치료를 해야 한다. 상한 영혼, 상한 마음, 상한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라야 한다.

발전하는 교회의 가장 위험한 함정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자체 비대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다를 바 없다. 교회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3. 合理的인 敎會行政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먼저 교회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 규명하고 교회의 구조적 체질적 병리현상을 잘 진단해야 한다.

미국 교회의 경우 결신자 가운데 약 50퍼센트가 교회를 등지고 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의 상당한 비율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기존 교인들을 상실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교인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화 교회들의 교회행정은 어떻게 하며 바람직한 행정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결신자를 잃은 원인을 보면,

첫째,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에게 확실한 영적 결단을 주지 못할때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둘째, 결신후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신후 지속적인 영적 훈련 (follow up) 을 게을리 할 때에 그는 여러가지 갈등을 갖고 이탈하기 쉽다.

셋째, 만족한 인간관계와 친교에 실패할 때 결신자는 교회에 흥미를 잃게 된다. 그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교회에 나와서 소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속감을 주어야 한다.

넷째, 신분에 적응하지 못할 때이다. 교회에 고위층만 나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오지 못한다. 신분의 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가 심방의 의미를 상실할 때이다. 대형화 교회는 하루에 20세대씩 방문하여 시간에 쫓겨 지나가는 의미없는 심방이 될 때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상실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회행정의 체계화를 이루어 나가면 교회는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다. 발전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회행정을 살펴보자.

3개 교회를 사례로 들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 강남구의 K 교회는 교인 2천명 이상이 되면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인력관리면에서 행정적인 성격을 탈피할 수 밖에 없고 또 경영방식 (목회행정학) 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교회라는 개방된 자유집단으로 형성된 거대한 인류의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지고의 가치관에 순응함으로써 스스로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82] 즉 교회의 인력은 하향식 명령으로 움직이는 계급제도도 아니고 실리로 연결되는 구속력도 없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자유도 있고, 버릴 자유도 있다. 그리고 찬양과 비난의 자유도 있다. 그러므로 목회 행정은 일반 행정이나 기업경영상의 인사관리보다 훨씬 어렵고 영혼을 관리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한다.[83]

K 교회는 신자관리나 그 확장운동을 대단히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1) 소그룹 운동

본 교회의 가장 활력있는 조직운동은 구역이다. 1개 구역은 7- 8세대로

---

82) 조동진, 「전게서」, p.34.

83) 「상게서」, p.36.

구성되며 매주 금요일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구역 지도자 훈련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2) 선교회

연령별 직업별로 구성한 팀이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특수선교회 등 53개 선교단체가 있다. 이들은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봉사사업을 한다.

3) 교육과 훈련

전국 교회지도자 훈련, 교회내 지도자 훈련, 집중적 성경연구대회,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등 질적 영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서울의 Y 교회는 평신도 중심으로 각종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교인 스스로가 교인을 돌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평신도 자질향상을 위한 교사훈련, 전도훈련, 제직훈련 등 여러가지 훈련과정이 있다. 교회운영이나 사업들은 평신도에게 맡기고 당회장은 오로지 설교준비에만 관심을 두고 한주간씩 지낸다. 그 주간에 심방부에서 카드를 작성하여 담당 전도사에게 전달된다. 담당 전도사는 그 주간에 구역의 권사 한사람과 함께 집을 확인해 두고 심방 보고서를 심방부에 넘기면 심방부에서는 카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목회자에게 1부는 구역장에게 1부는 교회 사무국에 배치해 두고 1개월에 1회씩 구역장이 「만남」지를 가지고 심방을 하는 평신도의 조직이 유기체로 움직이고 있음이 특징이다.

광주 J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교회 행정적인 면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조직적인 면에서 보면 잃은 양 한마리에 쏟는 정성으로 교인 한사람 한사람을 돌보고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조

직을 움직여 교회는 한 개인 영혼과의 동질감을 형성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지속적인 선교가 발전될 수 없다.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경우 공통점은 조직관리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직관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교회행정에 통일성이 없으면 설교가 아무리 훌륭해도 성장은 낮은 한계성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본 研究의 目的은 한국 敎會 組織運營의 實態와 改善方案의 摸索에 두었다. 이에 대한 要約 및 結論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要約

1) 敎會史를 통해서 敎會 正統性을 모색해 본 결과 초대 교회는 유기체로서 교회와 조직체로서 교회의 엄격한 구별은 없었지만 조직체적 요소의 필요성 인식, 중세 교회는 외적 조직체에 강조점을 둔 점, 종교개혁기의 교회는 제도로서 교회와 성도들 모임으로서의 교회로, 근세 교회는 유기체적 교회로 치우쳐 나가는 교회로 파악되었다.

2) 교회 조직운영에서 政治制度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監督制制度는 교회 最高의 재판권이 감독회의가 장악하고 있는 교회, 會衆制度는 전 교인의 투표에 의하여 교회행정이 이루어지는 교회, 長老制度는 代表制度의 교회로 밝혀졌다.

3) 敎會 組織運營의 實態에서 堂會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고, 이들의 합의하에 교회행정을 처리하며, 諸職會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구성되는데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는 제직회원이 담당하고 동시에 전반적인 재정관리,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敎會正統性에 비추어 한국 교회의 개선방안을 위하여 교회 조직의 일반적 실례를 6개 교회를 탐방, 연구해 본 결과, 각 교회별로 여러가지 장점

이 밝혀졌다. 즉, K 교회는 교회성장 전문연구가들의 이론을 적용 실천하고, S 교회는 새신자 등록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Y 교회는 목회자의 지도력 역량이 크고, C 교회는 어린이 교육에 역점을 두고, J 교회는 멧세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S 교회는 목회자가 교인들과 사사로이 사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5) 발전 지향적인 교회 조직운영에 있어서 교회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내에서의 끊임없는 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합리적인 교회행정을 위해서는 교회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 요청되었다. 교회성장의 저해 요인들은 새신자들에게 확실한 영적 결단을 주지 못할때, 그들에게 계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신후 지속적인 영적훈련을 게을리 할때, 인간관계와 친교에 실패하여 교회의 흥미를 잃게 될 때, 교회는 성장을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시대적으로 현대 목회자는 교회행정가로써 그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 요청되었다. 현대 교회는 한 목회자가 북치고 장구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철저한 교회행정의 뒷받침 없이는 교회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 結論

이에 대한 結論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교회는 유기체적과 조직체적인 극단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어느 한 극단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교회의 본질을 실현할 수가 없다. 합리적인 교회는 유기체로서 교회와 조직체로서 교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가는 것이라고 볼때 한국 교회는 합리적인 교회 조직 운영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둘째, 교회 정치제도에 있어서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제도는 장로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로제도는 모든 교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의제의 제도이기에 이것을 계속 발전지향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당회와 제직회의 회원들은 자기의 위치와 사명을 보다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요, 장로회 신조의 根本 여부와 조직의 형성 여부를 정확히 알고 교회를 운영해 나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신학적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 교회에서 종래의 교회운영은 관료주의적이고 독단적인 교회 운영 방식을 취해 왔다. 이 시점에서 목회자가 아집과 자만심을 버리고 현대교회 실정에 맞는 조직과 구조로 개선하게 되면 신도들이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선교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여섯째, 합리적인 교회란 흩어지는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에서 질적으로 성숙하고 내실을 다지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이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강정규, 「한국의 7대교회」, (서울 : 종로서적출판사, 1983)

김득룡, 「개혁파교회정치신강」, (서울 : 총신대출판부, 1984)

김영한, 「바르트에서 볼트만까지」,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김의환, 「기독교회사」, (서울 : 성광문화사, 1983)

김의환, 「칼빈주의교회관」, 신학지남 42권 3호 (1975. 9월)

김의환, 「키푸리안의 교회관」, 신학지난 37권 2집 (1970. 6월)

대한기독교서회, 그리스도교대사전, (서울 : 기독교서회, 1972)

대한기독교서회, 성경전서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부,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박완신, 「교회행정론」, (서울 : 기독교문사, 1992)

박형용, 「교회론」, (서울 :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변인복, 「칼바르트 교회론연구」, (석사논문, 감리교신학대학원, 1982)

성서교재연구회, 「교회의 역사」, (서울 : 종로서적, 1991)

손병호, 「장로교회사」,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0)

오신주, 「이상적 장로에 관한연구」,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원, 1976)

유순하, 「장로교조직에 관한연구」, (서울 장로교신학대학원, 1975)

이장식, 「현대 교회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7)

조동진, 「교회행정학」, (서울 : 창문사, 1964)

조동진, 「교회행정학」, (서울 : 크리스찬헤럴드사, 1981)

지원용, 「신구교회의 구조연구」, (기독교사상 10책 1호, 1966)

채필근, 「비교종교론」,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7)

하문호, 「교의신학교회론」, (서울 : 한국로고스연구원, 1991)

에버리 델리스, (김기철역), 「교회의 모델」, (서울 : 조명문화사, 1992)

도날드. 지. 멀러, (박상증역), 「교회의 본질과 사명」,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2)

E. G. 제이, (주재용역), 「교회론의 역사」,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Hendrikus Berkhof, Cheistian Faith, (Grand Rapids, Michgan : W. B. Eerdmans, 1973)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aigion vol. 2, Editor : John T. McNeill (Philadelpia ; The Wsterminster Perss)

J. N. D 켈리, (김광식역), 「고대기독교교리사」, (서울. 1983)

John Murray, Collected Weitings Vol. 2, (Edinburgh Pennsylvania : The Banner of Truth, 1977)

L. Berkhof, (고영민역), 「조직신학교회론」, (서울 : 기독교문사,1979)

L. Berkhof, (신복윤역), 「기독교교리사」, (서울 : 성광문화사, 1992)

L. Praamsma, (박종칠역), 「20세기의 교회」,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마이론 러쉬, (임창일역), 「성서적 경영방법」, (서울 : 생명의말씀사,1986)

오토베버, (김영재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 풍만출판사, 1985)

피터 와그너, (김선도역),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서울 : 광림,1989)

리챠드 백스트, (박형룡역), 「참목자상」, (서울 : 생명의말씀사, 1981)

Reinhold Seeberg, History of Doctrines, Translated by Charles E. HAY, (Grand Rapids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56)

워런 W. 위어스비, 하워드 F. 서그던, 공저, (조천영역), 「목회자지침서」, (서울 : 나침판사, 1984)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ies of the Operation of the Korean Church organization and Its Remedial Measure.

Kim, Yun Jae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making inquiries into the realities of the Korean church organization and its remedial measure. As a result of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could be obtained;

Firstly, seen through a history of church, the church tends to go to the organic and collective extremities. In case the church goes to either of the extremities, the essence of the church can not be achieved when the rational church is viewed as the one that the church as an organism and the church as the organizational body proceed to harmonize with each other, it is required that the Korean church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operation of the rational church organization.

Secondly, it was shown that the elder system is the system assuming the democratic method of operations in the political system of the church. Accordingly, since the elder system is the representative

(council) system that all the christians consult and decide upon church affairs, it continues to be developed and enhanced.

Thirdly, in the operation of the church the members on the minister-elder meeting and the minister-elder-deacon meeting will have to take more-faithful charge of their own positions and missions.

Fourthly, the church is not the church of an individual, and needs to have a theological training so that the charch can function as the body of Jesus christ by having an exact knowledge of whether the creed of the council of elders is fundamental or not and whether the organization is formed or not and proceeding to operate the church organization.

Fifthly, the Korean church has taken an authoritarian and arbitrary method of operation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church until recently. At this juncture, if the pastor discards his self-assertion and self-pride and improve the existing unreasonable church into the organization and structure matching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resent-day church, Christians will have a high confidence in the pastor and the church and become favorable at a dimension of preaching.

Sixthly, the rational church is the church that matures from the dispersed church to the united church and from qualitative growth to qualitive growth and make the church substantial.

Therefore, all the church on the ealth, or today's all the church will have to choose this way.